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Jeobon and Pangak of the Panbon for Tripitaka, *Eojebijangjeon*

柳 富 鉉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어제비장전』 제본의 판본과 저본
및 판각 |
| 2. 『어제비장전』의 대장경 판본 | 4. 결 언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御製秘藏詮』 대장경 판본과 저본 및 판각 성격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제비장전』의 『개보장 초본』은 2종의 판본이 있다. 하나는 20권본이고 다른 하나는 30권본이다: (1) 20권본은 988년에 간행된 『어제비장전』 20권과 부록(『御製佛賦』·『詮源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30권본은 989년 또는 그 이후에 20권본의 20권을 30권본의 제1권~제20권으로 구성하고, 20권본의 부록(『어제불부』, 『진원가』)을 제21권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다음 기타 御製를 제22~30권(제22~25권: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권, 제26~29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권, 제30권: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권)으로 편제하여 성립된 것이다. (3) 30권본 『어제비장전』에서 제1권~제20권은 20권본의 제1권~제20권과 동일한 板本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20권본이 기타 어제와 함께 30권본으로 편제될 때 20권본의 經板 전체가 그대로 30권본의 제1~20권의 경판으로 수용된 것이다.

2) 『개보장 수정본』은 『개보장 초본』이 교감·수정된 다음 수정·보각된 『개보장』 經板에서 인출된 것이다.

3) 『조성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될 때, 판화가 삭제된 다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성장본』 가운데 廣勝寺本과 興國院本은 동일한 판본으로서 광승 사본은 흥국원본보다 후에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4) 『조조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이다.

5) 『재조장본』은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될 때, 『개보장 초본』에 있던 판화가 삭제되고 또 원래의 상태(즉 20권본 登梓本의 대행 22행[추정]대로 행수가 조정되고 부분적인 교감·수정을 거친 다음 복각된 것이다.

6) 개보장 『어제비장전』의 판화는 20권본 『御製秘藏詮 개보장 초본』이 간행될 때(988년), 이미 완성된 20권본 『어제비장전』의 登梓本에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판각된 것이다. 이때 판화가 每張과는 관계없이 본문인 偈頌 10首(40句) 사이사이에 삽입되었고,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은 대장의 행수가 22행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문에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의 끝부분(좌측에 판화가 있는 장)에 해당되는 장의 행수는 22행이 못 되고 14~23행으로 일정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7) 『어제불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어제불부 『中華藏 別出本』의 저본은 원래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3년 8월 29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부록이었다가 다시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으로 편제된 『개보장 수정본』이다. (2) 어제불부 『증화장 별출본』의 판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조성장본』이다. (3) 어제불부 『조성장본』의 저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개보장 수정본』이다. (4) 어제불부 『재조장본』의 저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개보장 초본』이다.

要語: 『어제비장전』, 대장경, 초조장, 개보장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 of panbon, jeobon, and pangak for Tripitaka, *Eojebijangjeon*. To put it briefly is as in the following.

1) There are two kinds of panbon in Tripitaka Kai bao chobon of *Eojebijangjeon*. One consists of the total 20 volumes and the other is total 30 volumes.: (1) The former is composed of 20 volumes of *Eojebijangjeon* published in 988 and supplements(Eojebulbu and Jeonwonga). (2) The latter is formed with the first volume through the 20th for total 30 volumes instead of the 20th for the total 20 volumes after 989 or since then. And after it made the supplements for the total 20 volume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21st volume, it is completed by organizing other eoje into the 22nd through 30th. (3) It is estimated that the first and the 20th volume in the total 30 volumes of *Eojebijangjeon* are the same panbon as the first through 20th volume for the total 20 volumes. In other words when the total 20 volumes is made into the total 30 volumes with other eoje, the whole gyungpan of the former is accepted into the first to 20th of the latter as it is.

2) Tripitaka Kai bao sujeongbon is from the wood plate of Tripitaka Kai bao which is corrected and filled after Tripitaka Kai bao chobon is compared, straightened out, and then rectified.

3) It is thought that it was cut as it was again after the print was deleted as Josungjangbon was published while making Tripitaka Kai bao sujeongbon jeobon. And Kwangseungsabon and Heunggukwonbon out of Josungjangbon are identical panbon, and it is considered the former is the panbon that is carved later than the latter.

4) Chojojangbon is carved again with Tripitaka Kai bao sujeongbon as a jeobon.

5) Jaejojangbon is carved again after the print on it is erased and the number of lines is adjusted back again, and then it is corrected in part when it is published with Tripitaka Kai bao chobon as a jeobon,

6) The woodcut of Tripitaka Kai bao *Eojebijangjeon* is additionally inserted in deungjaebon for finished the total 20 volumes of *Eojebijangjeon* and is engraved when the print of the total 20 volumes of *Eojebijangjeon* Tripitaka Kai bao chobon is published in 988.

7) For the Eojebulbu, it is analysed as following.: (1) The jeobon of Eojebulbu Junghwajang byulchulbon was originally the appendix on the total 20 volumes of *Eojebijangjeon* and then it becomes Tripitaka Kai bao sujeongbon that is organized with the 21st of the total 30 volumes of *Eojebijangjeon*. (2) The panbon of Eojebulbu Junghwajang byulchulbon is Josungjangbon that goes for the 21st of the total 30 volumes of *Eojebijangjeon*. (3) The jeobon of Eojebulbu Chojojangbon is Tripitaka Kai bao sujeongbon that goes for the 21st of the total 30 volumes of *Eojebijangjeon*. (4) The jeobon of Eojebulbu Jaejojangbon is Tripitaka Kai bao chobon that goes for the 21st of the total 30 volumes of *Eojebijangjeon*.

Key words: *Eojebijangjeon*, Tripitaka, Chojojang, Tripitaka Kai bao

1. 서 언

『御製秘藏詮』은 북송 태종이 불교의 깊은 뜻을 읊은 偈頌集이다. 여기에는 권마다 50首의 偈頌이 20권에 걸쳐 총 1,000首의 개송이 실려 있으며 10首(40句)의 개송 사이사이에 판화가 삽입되어 있다. 이 책은 처음에 『開寶藏』에 수록되어 유포되었고, 이후 『개보장』의 복각본인 『趙城藏』에도 수록되어 세상에 유통되었다. 고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어제비장전』이 간행되었다. 이른바 『初雕藏』과 『再雕藏』에 수록되어 유통된 것이다.¹⁾

종래 이 『어제비장전』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고려 초조장의 板刻과 고려 산수화의 발달단계, 표현기법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고려 초조장의 판화는 “北宋本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조조한 것”, “북송 開寶勅版에 실린 山水畵의 어느 점을 닮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판각된 11세기 후반기의 고려시대 산수화의 모습이 더욱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御製秘藏詮의 북송판과 고려판의 비교는 ... 종래의 학자들이 우리의 초조대장경의 판각술이 北宋本의 복각이라고 여겼던 사실에 대해 국내의 전본에 의하여 版下本을 마련하고 판각해 내었다는 입증이 되겠다.”는 인식도 있었다.²⁾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어제비장전』은 『초조장』과 『재조장』의 판본을 비롯하여 이들의 바탕이 되었던 『개보장』과 『개보장』의 완전한 복각본인 『조성장』의 판본이 전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초조장』과 『재조장』의 저본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이미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어제비장전』에 대해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초조장 『어제비장전』 판화는

1) 柳富鉉,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59.

2) 柳富鉉,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畵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237.

개보장 『어제비장전』의 판화가 그대로 登梓本으로 사용되어 복각된 것임을 구명하였고,³⁾ 초조장 『어제비장전』은 『開寶藏 修訂本』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되었고, 재조장 『어제비장전』은 『開寶藏 初本』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되었음을 밝혔다.⁴⁾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에 대해서 그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고찰하여 『어제비장전』에 대한 필자의 연구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장경 판본 간의 저본 관계, 특히 『초조장』과 『재조장』 그리고 『개보장』의 상호간의 관계 및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어제비장전』의 대장경 판본

여기에서는 『御製秘藏詮』의 편찬과 종류에 대해서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여 새로운 이해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보존되고 있는 대장경 板本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대장경의 諸本에 나타나는 차이점에 무게를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연구의 도움이 되고자 開寶藏 및 宋太宗 御製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柳富鉉,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45집(2010. 6), 257.

4) 柳富鉉,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91.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표 1> 대장경 및 어제비장전 관련 기록

		開寶藏 관련 내용	開寶藏의 高麗 傳來 및 高麗藏의 雕造	佛祖統紀의 記錄
971	開寶 4	開寶藏 本藏 5048卷 481帙 ⁵⁾ 의 雕造가 시작됨		
983	太平 興國 8	開寶藏 本藏의 雕造가 완료됨 ⁶⁾ 蓮華心輪廻文偈頌 11卷이 20人의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⁷⁾		御製蓮華心輪廻文偈, 秘藏詮, 逍遙詠이 近臣에게 宣示됨
988	端拱 1	秘藏詮 20卷, 秘藏詮佛賦[御製佛賦]·歌行[詮源歌] 1卷이 56人의 註解를 거쳐 編聯入藏됨		
989	端拱 2 성종 8	秘藏詮幽隱律詩 4卷, 秘藏詮懷感詩 4卷, 秘藏詮懷感廻文詩 1卷, 逍遙詠 11卷이 12人의 註釋을 거쳐 編聯入藏됨		
			“復遣僧如可來觀請釋氏大藏經 詔給之”(文獻通考) “遣使來貢 詔其使選官侍郎韓闡卿 副使兵官郎中魏德柔 並授金紫光祿大夫 … 先是治遣僧如可賚表來觀請大藏經 至是賜之 仍賜如可紫衣 令同歸本國”(宋史 高麗傳 端拱二年條)	
991	淳化 2 성종 10			
			“遣使韓彥恭來貢 彥恭表述治意 求印佛經 詔以藏經 并御製秘藏詮 逍遙詠 蓮華心輪 賜之”(宋史 高麗傳 淳化二年條) “韓彥恭 … 成宗時 … 如宋謝恩 宋以彥恭 儀容中度 授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尚書兼御史大夫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 逍遙 蓮花心輪 還”(高麗史 韓彥恭列傳)	

5) 中村菊之進은 開寶版의 正藏은 당초 개원록에 수록된 5048권을 481函으로 구성하고, 후에 480函으로 개구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敎文化』 145(1984), 38).

6) 開寶藏의 本藏 5048卷은 開寶 4년(971)에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고, 刻成된 經板은 同年에 印經院에 안치되어 印刷·流通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7) 御製類에 대한 내용은 『大中祥符法寶錄』 卷第十八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開寶藏 관련 내용	開寶藏의 高麗 傳來 및 高麗藏의 雕造	佛祖統紀의 記錄
995	至道 1	緣識 5卷이 印經院에서 開板되어 編聯入藏됨		
996	至道 2			御製秘藏詮 20권, 緣識 5권, 逍遙詠 10권에 箋注를 하여 入藏 頒行됨
998-	咸平 初年	宋新譯經(“經傳 30帙”), ⁸⁾ 續開元錄藏(“未入藏經 27帙”), ⁹⁾ 太宗의 御製 三藏集傳 ¹⁰⁾ 이 大藏에 編入됨 ¹¹⁾		
		開寶藏은 咸平初年(998-)에 한번 校勘됨 ¹²⁾		
1018	天禧 2	開寶藏은 天禧 2년(1171)에 다시 校勘됨 ¹³⁾		

8) “經傳 30帙”이란 것은 현존 趙城藏과 再雕藏의 “杜”부터 “般”帙까지의 北宋新譯經(宋新譯經 A)으로 再雕藏에 의해 헤아려 보면 188部 279卷인데, 대체로 譯經院이 설치된 太平興國 7년(982)부터 시작하여 咸平 2년(999)까지 譯經院에서 譯出한 것을 本藏에 連系하여 入藏刊行하고, 咸平 2년(999) 이후 續藏으로서 전반적으로 反사하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9) “未入藏經 27帙”은 咸平 初年(998 - ?)에 編入된 이후 天聖 5년(1027) 惟淨에 의해 27帙로 編帙되었고, 景祐 3년(1036)에 呂夷簡等의 요청으로 校正되었으며, 熙寧年間(1068-1077)에 本藏과 함께 유통되었던 것이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 彙編』 上(1977), 201). “未入藏經 27帙”은 아래와 같다.

- 開元錄에 遺漏된 경전 1帙
- 開元錄 이후 玄宗, 肅宗, 太宗, 德宗 등 4朝에서 漢譯된 경전 19帙
- 大唐開元釋教廣品歷章 30卷 · 正元續開元錄 3卷 3帙
- 新譯大方廣佛華嚴經 40卷 4帙

10) 法苑珠林 100卷, 曹溪寶林傳 10卷, 景德傳燈錄 30卷.

11) 『寶林傳』 卷第二 末尾. “咸平元年上表 乞續編入開元年智昇撰錄後來唐文肅代德四朝七人三藏所齎 并聖朝四人翻譯 并聖製三藏集傳一千餘卷 今取聖旨 集補之.”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책(1984), 617).

12)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呂澂의 글이 有意하다.

“아마도 함평 초년(998-)에 측판 장경은 이미 한번 교감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든 측판의 오류가 이 때에 이미 10여 곳 개정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생략) 이 때의 人本을 측판 初校本이라 할 수 있다. 이 人本과 함께 유통된 것에는 또 宋代의 新譯經이 있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 上(1977), 201).

13) 『景祐法寶總錄』 권13. “天禧二年 詔左僕射兼中書侍郎平章事王欽若 擇藏經之精妙者 龔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開寶藏 관련 내용	開寶藏의 高麗 傳來 및 高麗藏의 雕造	佛祖統紀의 記錄
1011	현종 2		初雕藏 雕造 시작	
1019	天禧 3 현종 10		“九月 登州言 高麗進奉使禮賓卿崔元信秦王水口遭風 覆舟漂失貢物 詔遣內臣撫之 十一月元信等入見 貢鬪錦衣褥烏漆甲金飾長刀匕首鬪錦鞍馬紵布藥物等 又進中布二千端求佛經一藏 詔賜經還布 以元信覆溺匱乏別 賜衣服繒綵焉”(宋史 高麗傳 天禧三年條)	
1022	乾興 1 현종13	開寶藏은 乾興 1년(1022)에 다시 한 번 校勘되다가 중단됨 ¹⁴⁾	“韓祚還自宋 帝賜 … 釋典一藏”(高麗史 顯宗世家)	
1083	元豐 6 太康 9 문종 37		“宋送宋朝大藏經 命太子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高麗史 文宗世家)	
1087	선종 4		初雕藏 雕造 완료	
1149 1173	皇統 9 大定 13	趙城藏이 雕造됨		
1236 1251	고종 23 고종 38		再雕藏이 雕造됨	

2.1 『어제비장전』의 편찬과 종류¹⁵⁾

『御製秘藏詮』은 중국 북송 태종(976-997)이 불교의 깊은 뜻을 읊은 偈頌集이다. 여기에는 권마다 50首의 偈頌(계송 1수는 5言 4句로 이루어짐)이 실려 20권에 걸쳐 총 1,000首의 계송이 실려 있으며 10首(40句)의 계송 사이사이에 관화가

校鏤板模印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책 (1984), 559).

14) ① 『景祐法寶總錄』 乾興元年條의 記事. “乾興元年 詔惟淨等校大藏經.”(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책 (1984), 596).

② 『景祐法寶總錄』 권17. “乾興元年 春正月 詔梵學筆受澄珠文一綴文簡長行肇 證義重吳善慈 就本寺普賢閣 同校大藏經 仍取天壽皇建二院 經本參對 三藏惟淨管勾 會真宗升遐 罷其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73책 (1984), 576).

15) 본 절의 내용은 柳富鉉(“『御製秘藏詮』 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61-64)에서 기술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삽입되어 있다. 이 『어제비장전』은 20권본과 30권본 두 종류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어제비장전』 제1권의 권수제 내용

御製秘藏詮卷第一 總一千首共 二十卷并註 佛賦二首附 歌行一首附

이중 20권본은 앞에 소개된 『어제비장전』 제1권의 卷首題의 내용과 뒤에 제시된 『祥符錄』¹⁶⁾의 기록에서 파악되듯이, 端拱 원년(988) 12월에 56인이 주해를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어제비장전』 20권과 附錄 1권(『佛賦(御製佛賦)』·『歌行(詮源歌)』)인 것이다(<표 3> 참조).

30권본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인이 주석을 한 다음 개보장에 編聯入藏된 御製(御製秘藏詮幽隱律詩 4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권,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권)가 추가되어 성립된 것이다. 이때 성립된 30권본은 20권본의 20권을 30권본의 제1권~제20권으로 구성하고, 20권본의 부록(『御製佛賦』·『詮源歌』)을 제21권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다음 기타 御製를 제22~30권(제22~25권: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권, 제26~29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권, 제30권: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권)으로 편제하여 성립된 것이다.¹⁷⁾

16) 祥符錄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準 등이 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한 목록인데, 현존본은 卷1, 2, 5, 9, 19, 21, 22 등이 결실되었고, 卷6, 10 두 권은 간결된 상태이다. 본 목록에는 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신역된 경전 및 宋 太宗의 御製 등 222部 413권이 기재되어 있다.

17) 『御製秘藏詮』 30권의 편제를 一見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제20권 : 『御製秘藏詮』 20卷
제21권 : 『御製佛賦』·『御製詮源歌』 1卷
제22권~제25권: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제26권~제29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제30권 :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

<표 3> 『대중상부법보록(大中祥符法寶錄)』 제18권의 기록

… 我太宗皇帝 … 著心輪偈秘藏詮逍遙詠等歌詩凡五十七卷 既置於寶藏亦秘在名山 …

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
 秘藏詮 二十卷
 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
 秘藏詮幽隱律詩 四卷
 秘藏詮懷感詩 四卷
 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
 逍遙詠 一十一卷
 緣識 五卷

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
 右此頌文 … 太平興國八年(983)成 是年三月 上遣 … 等二十人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
 秘藏詮 二十卷
 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
 右詮賦等端拱元年(988)十二月 上遣 … 等五十六人同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
 秘藏詮幽隱律詩 四卷
 秘藏詮懷感詩 四卷
 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
 逍遙詠 一十一卷
 右詩什端拱二年(989)十一月 上遣 … 等一十二人同爲之注釋 … 詔以其文編聯入藏
 緣識 五卷
 右頌至道元年(995)三月中 詔下印經院 開板模印 編聯入藏

한편 『宋史·高麗傳』 淳化 2年(991)條의 기사(“韓彥恭來貢, 彥恭表述治意, 求印佛經. 詔以藏經, 并御製秘藏詮·逍遙詠·蓮華心輪. 賜之.”)와 『高麗史·韓彥恭列傳』의 기록(“韓彥恭 … 成宗時 … 如宋謝恩. 宋以彥恭. 儀容中度. 授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尙書兼御史大夫.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逍遙·蓮花心輪, 還.”)에는 한언공이 송나라에서 『御製秘藏詮』, 『蓮華心輪廻文偈頌』, 『逍遙詠』을 받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언공이 받아들인 송 태종의 어제에는 『어제비장전』의 제22~30권에 해당되는 『御製秘藏詮幽隱律詩』,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언공이 宋에서 받아들인 『어제비장전』은 이들이 포함된 30권본 『어제비장전』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어제비장전』 30권본은 『어제비장전』 21권(부록 포함)이 간행된 端

拱 元年(988) 이후, 『御製秘藏詮』 22-30권에 해당되는 기타의 御製詩가 간행된 端拱 2년(989) 또는 30권본 『어제비장전』이 고려에 전래된 淳化 2년(991) 이전에 『어제비장전』 21권(부록 포함)과 기타의 御製詩 9권이 합편되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러한 『어제비장전』의 성립과 유통에 대해 현재 학계에서는 아래의 『佛祖統紀』의 기록에 근거하여 20권본은 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되어 近臣에게 宣示되었던 판본으로서 고려에는 成宗 10년(991)에 印成藏經과 함께 도입된 것이고, 30권본은 至道 2년(996)에 箋注가 가해져 再刊된 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⁸⁾ 무엇보다도 『祥符錄』은 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신역된 경전 및 송 태종의 어제 등 222部 413卷의 한역과 간행에 대해 매우 상세한 실록이 기재되어 있는 入藏目錄으로서 1013년에 편찬된 것이다. 반면에 『불조통기』는 일종의 佛教史書이지만, 『어제비장전』이 간행된 지 약 280년 뒤인 1269년에 저술되었고, 『어제비장전』에 대한 기록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신빙성도 매우 떨어진다.

<표 4> 『불조통기』 권43의 기록

『佛祖統紀』 卷43 : “太平興國八年 詔以御製蓮華心輪迴文偈 秘藏詮 逍遙詠宣示近臣 … … 至道二年 詔以御製秘藏詮二十卷 緣識五卷 逍遙詠十卷 命兩街箋注入大藏頒行”

예를 들어 『불조통기』에서는 至道 2년(996)에 『어제비장전』 20권, 『연식』 5권, 『소요영』 10권 등에 箋注가 가해져 入藏 頒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록』에서는 『연식』 5권에 대해 전주를 가했다는 내용은 없고 至道 元年(995) 三月에 印經院에 조서를 내려 開板 模印하고 編聯 入藏했다는 기록으로 되어 있다. 사실 재조장본 · 초조장본 · 조성장본의 『연식』 5권은 전주가 가해지지 않

18)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同文化研究』 제11집(1976), 181. 서울: 成大大同文化研究院.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初雕本大藏經』 調査完了 報告會 資料集』 (2010), 105.

은 正文本이다. 실제로 『연식』 5권은 『상부록』의 기록처럼 전주가 가해지지 않고 原文만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불조통기』에서는 『연식』 5권에 전주가 가해진 것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불조통기』에 기재된 『御製秘藏詮』에 대한 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조통기』의 기록에 근거한 『어제비장전』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마땅히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어제비장전』의 대장경 판본

『御製秘藏詮』의 대장경 판본으로는 현재 제조장본·초조장본·조성장본·개보장본이 현재 전존되고 있다. 전존되고 있는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보장본 『어제비장전』 1권(미국 하버드대학교소장본, 제13권)
- ② 제조장본 『어제비장전』 30권(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 인경본 등, 30권 전권)
- ③ 초조장본 『어제비장전』 20권(일본 남선사소장본, 제17권과 제22-30권을 제외한 20권)
- ④ 조성장본 『어제비장전』 20권(중국 국가도서관소장본, 제2, 4, 12, 13, 15, 17, 21, 24, 25, 26권을 제외한 20권), (조성장본의 제16권은 興國院本과 廣勝寺本 2종의 印本이 있다.)

현재 『어제비장전』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보장본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제13권 1권뿐이고, 개보장본의 복각본인 조성장본은 제1, 3권, 제5-11권, 제14, 16권, 제18권-20권, 제22, 23권, 제27-30권 모두 20권이 중국의 國家圖書館에 전존되고 있다. 그리고 초조장본으로는 일본 南禪寺에 제17권을 제외한 제1권부터 제20권까지의 19권과 부록인 21권을 포함하여 20권이 소장되어 있고, 제조장본은 全卷이 완전히 전존되고

있다. 한편 『어제비장전』은 남송 대장경(『崇寧藏』, 『毗盧藏』, 『圓覺藏』, 『資福藏』)에도 入藏·刊行은 되었지만,¹⁹⁾ 지금 진존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존하고 있는 『어제비장전』의 재조장본·초조장본·조성장본·개보장본은 모두 988년(端拱 元年)에 간행된 개보장 『어제비장전』 20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판본 사이에는 판화의 유무, 내용(文字異同), 본문의 행수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첫째,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文字異同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어제비장전』의 내용(文字異同) 상태

底本(즉 開寶藏)	諸本	
20卷本 『開寶藏 初本』		
30卷本 『開寶藏 初本』	『再雕藏本』	아래의 4本과 不同
30卷本 『開寶藏 修訂本』 (現存本: 開寶藏 하버드대학본)	『初雕藏本』 『趙城藏 興國院本』 『趙城藏 廣勝寺本』	4本 모두 同一

둘째,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판화 有無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6> 『어제비장전』 판화의 유무

底本(즉 開寶藏)	諸本	
20卷本 『開寶藏 初本』의 登梓本	無[推定]	
20卷本 『開寶藏 初本』의 刻本	有[推定]	
30卷本 『開寶藏 初本』	有[推定]	『再雕藏本』 削除
30卷本 『開寶藏 修訂本』 (開寶藏 하버드대학본)	有	『初雕藏本』 有
		『趙城藏本』 削除

19) 童瑋編, 『二十二種大藏經通檢』(中華書局, 1997), 420.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셋째,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본문 행수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7> 『어제비장전』 행수의 차이

底本(즉 開寶藏)	行數	諸本	行數
20卷本 『開寶藏 初本』의 登梓本	偈頌 22行(卷首 21行) [推定]		
20卷本 『開寶藏 初本』의 刻本	下同[推定]		
30卷本 『開寶藏 初本』	下同[推定]	『再雕藏本』	每張 偈頌 22行(卷首 21行)으로 조정
30卷本 『開寶藏 修訂本』 (현존본: 開寶藏 하버드대학본)	偈頌 22行(卷首 21行), 左傍에 版畫가 있는 장의 행수 不同	『初雕藏本』	偈頌 22行(卷首 21行), 左傍에 版畫가 있는 장의 행수 不同
		『趙城藏本』	偈頌 22行(卷首 21行), 左傍에 版畫가 있었던 장의 行수 不同

이제 먼저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내용(文字異同) 상태에 대해서 앞에 제시된 <표 6> “『어제비장전』의 내용(文字異同)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 보이듯이 『재조장본』을 제외한 『하버드대학본』(『개보장본』), 『초조장본』, 『조성장본』은 내용(文字異同) 상태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조성장본』은 주지하듯이 『개보장 수정본』의 복각본이다.²⁰⁾ 따라서 『개보장 수정본』의 복각본인 『조성장본』과 文字異同의 상태가 동일한 이 『하버드대학본』(『개보장본』)의 문자이동 상태는 바로 『개보장 수정본』의 문자이동 상태이고, 그 板本은 『개보장 수정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초조장본』은 그 文字異同의 상태가 『개보장 수정본』의 복각본인 『조성장본』, 그리고 『개보장 수정본』인 『하버드대학본』(『개보장본』)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초조장본』의 문자이동 상태는 『개보장 수정본』의 문자이동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하버드대학본』(『개보장본』), 『초조장본』, 『조성장본』과 매우 다른 文字異同 상

20)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1977), 201.

태를 보이고 있는 『재조장본』의 문자이동은 어떠한 것인가? 『재조장본』에는 『개보장 초본』의 오류가 그대로 인습되어 있다. 즉 다른 판본(즉 『개보장 수정본』과 『개보장 수정본』의 복각본)에서는 이미 교정되어 있는 오류(즉 『재조장본』의 저본인 『개보장 초본』에 내재된 오류)가 『재조장본』에서는 미처 수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인습되어 있는 것이다.²¹⁾ 이것은 바로 『재조장본』의 저본이 『개보장 수정본』이 아니라 『개보장 초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판화 유무와 본문 행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앞에 제시된 <표 5>, <표 6>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보장본 『어제비장전』의 판화는 20권본 어제비장전 『개보장 초본』이 간행될 때(988년), 이미 완성된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등재본에 판화가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때 판화가 每張과는 무관하게 本文인 偈頌 10首(40句)마다 삽입되었고,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本文(偈頌 10首)은 每張의 행수가 22행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문에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本文(偈頌 10首)의 끝부분(좌측에 판화가 있는 장)에 해당되는 장의 행수는 22행이 못 되고 14~23행으로 일정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초조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개보장 수정본』 본문과 판화가 거의 그대로 복각되었기 때문에 『초조장본』의 판화 유무와 본문 행수가 『개보장 수정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조장본』에 보이는 판화 유무와 본문 행수의 상태는 『재조장본』이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될 때, 『개보장 초본』에 있던 판화가 삭제되고 또 원래의 상태(즉 20권본 등재본의 매행 22행[추정]대로 행수가 조정되고 부분적인 교감·수정을 거친 다음 그대로 복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1) 柳富鉉,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91.

3. 『어제비장전』 제본의 판본과 저본 및 판각

여기에서는 『어제비장전』 대장경 諸本の 상호 대조를 통해 제본의 板本과 底本 그리고 板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제비장전』 제1, 13, 21, 16권은 제본의 판본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4권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1 『어제비장전』 제1권(재조장본·초조장본·조성장본)의 분석

『어제비장전』 제1권의 판본으로는 재조장본·초조장본·조성장본이 전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재조장본·초조장본·조성장본 『어제비장전』 제1권을 대조 분석한 다음, 『어제비장전』 제1권에 수록된 판화의 삽입 및 삭제 그리고 제본의 판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재조장본·초조장본 『어제비장전』 제1권의 대조

第12張 (總22行)	第11張 (總22行)		第10張 (總22行)	第9張 (總22行)	張數
← 偈頌	第22行 ← 第2行 第1卷의 偈頌	第1行 序文	第22行 ← 第1行 序文		『再雕藏本』 20卷本 『開寶藏本』의 登梓本 [推定]
← 偈頌	第1卷의 偈頌 第21行 ← 第1行	版畫	序文 第23行	序文 第22行 ← 第1行	『初雕藏本』 (30卷本 『開寶藏 修訂本』)
第15張 (總22行)	第14張 (總21行)	第13張	第12張 (總23行)	第11張 (總22行)	張數

첫째, 조성장본(중국 국가도서관소장본)은 본문(序文·偈頌)의 체재를 비롯하여 모든 장의 내용과 행수가 초조장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文字異同도 거의 동일하다. 단 초조장본에는 판화가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조성장본·초조장본 모두가 개보장 복각본이기 때문에 내용과 행수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조장본에서는 개보장본의 판화가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조성장본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고 삭제되어 버린 것이다.

한편, 『中華大藏經』에 영인·수록되어 있는 조성장본 『어제비장전』은 모든 장의 행수가 매장 21행의 상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제비장전』이 『중화대장경』에 수록될 때 『어제비장전』의 모든 장의 행수가 매장 21행으로 조정·편집된 다음 수록된 것이다. 본래 조성장본 『어제비장전』 제1권에서 본문(서문·계송)의 매장 행수는 22행이고(권수는 21행임), 左傍에 판화가 있는 장의 행수는 14~23행으로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재조장본 『어제비장전』 제1권 제11장(총22행)의 제2행부터는 본문(偈頌) 제1권의 내용이 시작되는데(그 앞의 내용은 서문임), 제1행은 序文의 내용이고, 제2행에는 『어제비장전』 제1권의 권수제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초조장本』에는 판화가 있는 관계로 이 『재조장本』의 제11장의 내용이 『초조장本』에는 제14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14장은 행수가 총 21행이다. 제1행에는 제1권의 권수제가 기재되어 있고, 『재조장本』 제1행에 있던 내용은 그 앞 장인 제13장의 23행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재조장본·초조장본 『어제비장전』의 저본인 『개보장本』에서의 본문(偈頌)과 판화의 구성 및 배치는 『초조장本』의 상태와 동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조장本』은 『개보장本』의 복각본이기 때문에 『초조장本』의 본문(序文·偈頌)과 판화의 구성 및 배치는 『개보장本』의 상태와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조장本』은 그 저본인 『개보장本』에 있었던 판화가 삭제되고, 행수가 조정된 다음 이것이 登梓本이 되어 복각되었기 때문에 저본인 『개보장本』의 형태와는 사뭇 다른 현재의 『재조장本』 형태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셋째, 재조장본·초조장본 『어제비장전』의 저본인 『개보장본』에서 본문(偈頌)과 판화의 구성 및 배치는 원래의 상태이었을까? 사실, 판화가 삽입되기 이전의 『개보장본』 登梓本은 『재조장본』과 동일하게 제1권 제11장의 제1행까지는 『어제비장전』 서문이 기재되고, 제2행부터는 제1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제1행인 아닌 제2행에 『어제비장전』 제1권의 卷首題가 기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10장, 제11장의 행수는 22행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登梓本 제1권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즉 『재조장본』 제11장 제2행) 앞에 종래 없었던 판화가 삽입되어 수정된 다음 판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조장본』 제11장 제1행(서문의 말행)은 삽입된 판화의 앞장인 『초조장본』 제12장 제23행으로 옮겨 배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로 『개보장본』의 刻本에서는 제12장의 행수가 원래 판화가 삽입되기 이전의 登梓本에서는 22행이었던 것인데 1행이 증가되어 23행이 되었고, 제14장의 행수 역시 원래 22행이었던 것이지만 1행이 감소되어 21행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고, 『초조장본』의 상태가 원래(판화가 삽입되기 이전의 『개보장』 登梓本)의 상태라고 한다면, 『초조장본』 제14장의 행수는 21행이 아닌 『초조장본』(즉 『개보장본』)의 일반적인 다른 장의 행수와 같이 22행으로 되었을 것이다.

3.2 『어제비장전』 제13권(재조장본·초조장본·개보장본)의 분석

『어제비장전』 제13권의 판본으로는 재조장본·초조장본·개보장본이 전존되고 있다. 개보장본은 하버드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다. 여기에서는 『어제비장전』 제13권의 판본(재조장본·초조장본·개보장본)의 대조 분석을 통해 제본의 판본과 판각 관계 및 개보장 하버드대학본 『어제비장전』 제13권의 판화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재조장본·개보장본 『어제비장전』 제13권의 대조

10首(40句) →			← 10首(40句) →			本文(偈頌)의 區分 (總50首, 1首는 5言 4句)	
4 (22)		3 (22)		2 (22)	1 (21)	張次 (總行數)	『再雕藏本』 Ⅱ 20卷本 開寶藏本 의 登梓本 [推定]
-19	18←	19	18←1	22←1	21←1	行數	
22←1		版 畫	18←1	22←6	←		行數
4 (22)			3 (18)	2 (22?)	缺 (1, 版畫) (21?)		張次 (總行數)

→		← 10首(40句) →					←		
10 (22)		9 (22)		8 (22)	7 (22)	6 (22)	5 (22)		
-6	5←	6	5←	13	12←	13	12←	19	18←
22←1		版 畫	15←1	22←1	22←1		版 畫	16←1	22←1
10 (22)			9 (15)	8 (22)	7 (22)			6 (16)	5 (22)

← 10首(40句) →			← 10首(40句)							
14 (22)		13 (22)	12 (22)		11 (22)	10 (22)				
16←		21	20←		21	20←	6	5←	6	5←
18←1	22←1	22←1		版 畫	15←1	22←1	22←1			
15 (18)	14 (22)	13 (22)			12 (15)	11 (22)	10 (22)			

첫째, 초조장본은 개보장본과 대조한 바, 本文(偈頌)과 판화의 구성 및 배치뿐만 아니라 文字異同까지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초조장본은 개보장본의 복사본으로 판단된다. 단 초조장본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는 그 위치가 개보장본과는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 필자는 이미 앞의 『어제비장전』 제1권의 분석에서 『재조장본』은 그 저본인 『개보장본』에 있었던 판화를 삭제하고, 행수를 조정한 다음 이것을 登梓本으로 삼아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기(즉 『어제비장전』 제13권)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재조장본 『어제비장전』 제13권에서 판화가 삭제되고 행수가 조정된 후 이어 붙여진 부분으로 추정되는 행간(계송 10수마다의 行間)을 보면, 본래 있었던 부분과 붙여진 부분의 글자의 가로줄(橫列)이 어긋나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부분이 한 장 속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인위적으로 다른 장의 내용이 잘라내어져 이곳으로 옮겨 붙여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재조장본』의 저본인 『개보장본』에서는 원래 판화 때문에 서로 다른 장에 있던 부분인데, 『재조장본』에서는 판화가 삭제되어 한 곳에 이어 붙여지고 모든 장의 행수가 조정된 다음 복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셋째, 개보장 하버드대학본·초조장본 『어제비장전』 제13권에서 좌측에 版畫(이들 판화에는 張次가 부여되지 않았음)가 있는 장의 행수는 전형적인 행수인 22행이 아닌 15~18행으로 일정하지 않다.²²⁾ 왜냐하면 개보장 『어제비장전』이 처음 간행될 때, 이미 만들어진 개보장 『어제비장전』의 登梓本에 매장과는 무관하게 본문인 偈頌 10首(40句)마다 張次가 부여되지 않은 판화가 추가적으로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은 매장의 행수를 22행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의 끝부분(좌측에 판화가 있는 장)에 해당되는 장의 행수는 22행이 못 되고 15~18행으로 일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개보장 하버드대학본 『어제비장전』 제13권에서 판화의 배치 상태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본문(偈頌) 행수의 상태가 『개보장』 登梓本 원래의 상태이었다면, 판화와 판화 사이에 있는 계송의 각 장은 당연히 동일한 분량 즉 비슷한 행수로 균등하게 나누어졌을 것이고, 또한 판화에도 장차가 부여되었을 것이다.

22) 原來 판화가 삽입되기 이전의 20卷本 『御製秘藏詮』 登梓本の 行數는 모두 每行 22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어제비장전』 제21권(중화장 별출본·초조장본·재조장본)의 분석

『어제비장전』 제21권(『御製佛賦』)의 판본으로는 『中華藏 別出本』·『初雕藏本』·『再雕藏本』이 전존되고 있다. 『중화장 별출본』은 『中華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어제비장전』 30권²³⁾ 외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 『어제불부』 판본이다. 그리고 『어제불부』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부록으로서의 『어제불부』이고, 다른 하나는 30권본 『어제비장전』의 제21권으로서의 『어제불부』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재조장본·초조장본·중화장 별출본 『어제불부』를 대조 분석한 다음(<표 10> 참조), 『중화장 별출본』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부록으로서의 『어제불부』와 30권본 『어제비장전』의 제21권으로서의 『어제불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御製佛賦 『中華藏 別出本』에는 대장경의 전형적인 권수제 형태로서 『재조장본』에 보이는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과 같은 권수제가 기재되지 않고, 단지 “御製佛賦”라는 題名만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중화장 별출본』의 母本이 원래 『개보장 초본』으로서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부록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권수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30권본으로서 조성장본 『어제비장전』 제21권은 현재 결실되어 중국 國家圖書館에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중화장 별출본』 御製佛賦에는 권수제는 없지만, “賦上 第四張 宗字號”와 같은 板尾題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제비장전』의 千字文 帙號와 동일한 질호인 “宗”자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성장본 『어제비장전』 제21권은 결실된 것이 아니라, 『中華藏 別出本』이 제21권이라는 卷次가 기재된 卷首題가 없는 상태로 30권본의 제21권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3) 『中華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30卷本 『御製秘藏詮』에서 제21권에 해당되는 『御製佛賦』는 趙城藏本이 아닌 再雕藏本으로 代替 收錄되어 있다.

『어제비장전』 대장경 판본의 저본과 판각에 대한 연구

<표 10> 『어제불부』 제본의 구성

再雕藏本 張行次	諸本			內容
	『再雕藏本』	『初雕藏本』	『中華藏 別出本』	
	(削除)	有	(削除)	版畫
제1장 板首		御製佛賦秘藏詮廿一 第二幅 ■		板首題
+1행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 肥			卷首題
제1장 제1행	御製佛賦	御製佛賦	御製佛賦 宗	題名
제2행 → 제21행				本文
제2장 板首 板尾	秘藏詮卷第二十一 第二張 肥	御製佛賦秘藏詮二十一 第三幅 ■	賦上 第二張 宗字号	板首題 板尾題
제1행 → 제22행				本文
제11장 제6행	以上 御製佛賦(上) 不分卷	以上 御製佛賦(上) 不分卷	以上 御製佛賦(上) 分卷	卷次
	(削除)	有	(削除)	版畫
제11장 제7행	御製佛賦	御製佛賦 御製佛賦秘藏詮二十一 第十四幅 勒	御製佛賦 賦下 卷二	題名 板首題 板尾題
제23장 제15행	以上 御製佛賦(下) 不分卷 以下 御製詮源歌	以上 御製佛賦(下) 不分卷 以下 御製詮源歌	以上 御製佛賦(下) 分卷 以下 御製詮源歌	卷次
	(削除)	有	(削除)	版畫
제23장 제16행, 제17행	御製詮源歌 詮源歌	御製詮源歌 詮源歌	御製詮源歌 詮源歌	卷首題 題名
제30장 (卷末)	秘藏詮卷第二十一 第三十張 肥	御製佛賦秘藏詮二十一 第十八幅 ■	詮源歌 賦下 第七 宗	板首題 板尾題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 肥	御製詮源歌	御製詮源歌	卷末題

『再雕藏本』에는 板尾題, 『初雕藏本』과 『中華藏 別出本』에는 板首題가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중화장 별출본』이 바로 조성장 30권본 『어제비장전』의 제21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²⁴⁾

둘째, 어제불부의 『초조장본』에 기재되어 있는 板首題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 그리고 『재조장본』에 기재되어 있는 卷首題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을 보면, 『초조장본』·『재조장본』 御製佛賦는 30권본 『어제비장전』의 제21권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제본의 文字異同 상태는 『중화장 별출본』과 『초조장본』이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와 동일하고, 『재조장본』은 『개보장 초본』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어제불부 『재조장본』의 제1장은 22行으로 되어 있다. 원래 『어제불부』는 20권본의 『어제비장전』의 부록으로서 제1장은 21행이고 卷首題는 없었다. 그런데 후에 『어제불부』 30권본의 제21권으로 편제되었고, 이 때 제21권 제1장의 맨 앞에 卷首題인 “御製秘藏詮卷第二十一” 1행이 첨가되어 22행으로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²⁵⁾

3.4 『어제비장전』 제16권(조성장 『흥국원본』·『광승사본』)의 분석

『어제비장전』 제16권에 있어서 조성장의 『興國院本』과 『廣勝寺本』²⁶⁾은 동일한 판본이다. 두 본을 실사한 결과 두 본의 文字異同뿐만 아니라 자체, 자형, 글자의 크기, 刀刻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단, 『광승사본』은 글자에 다소 마멸된 상태가 보이고, 上下邊欄의 길이에 있어서 『광승사본』이 『흥국원본』보다 전체적으로 0.2cm 정도 짧다. 이것으로 보아 『광승사본』은 『흥국원본』보다

24) 참고로 『초조장본』에도 제21권의 권수제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보장 초본에도 제21권의 卷次는 卷首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참고로 30권본 御製秘藏詮 『再雕藏本』 각권의 행수는 차이가 있다. 제1권~제20권은 매장 22행(권수 21행), 제21권은 매장 22행(권수 22행), 제22권~제30권은 매장 21행(권수 20행)이다.

26) 『趙城藏 興國院本』에는 卷首에 “興國院”이란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趙城藏 興國院本』으로 명명된 것이고, 『趙城藏 廣勝寺本』은 趙城縣에 소재한 廣勝寺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趙城藏 廣勝寺本』으로 명명된 것이다. 단, 『中華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廣勝寺本』은 『中華大藏經』이 편찬될 때 『御製秘藏詮』의 모든 장의 행수가 每張 21行으로 조정·편집된 다음 영인·수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후에 인출된 판본으로 여겨진다.

4. 결 언

이상에서 고찰한 사실에 의거하여 『御製秘藏詮』 대장경 판본과 저본 및 판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어제비장전』의 『개보장 초본』은 2종의 판본이 있다. 하나는 20권본이고 다른 하나는 30권본이다.

(1) 20권본은 988년에 간행된 『어제비장전』 20권과 부록(『御製佛賦』·『詮源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30권본은 989년 또는 그 이후에 20권본의 20권을 30권본의 제1권~제20권으로 구성하고, 20권본의 부록(『어제불부』·『전원가』)을 제21권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다음(『초조장본』의 경우 이 『어제불부』·『전원가』에 卷首題는 기재되지 않았고 권수제에 제21권을 나타내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기타 御製를 제22~30권(제22~25권: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권, 제26~29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권, 제30권: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권)으로 편제하여 성립된 것이다.

(3) 30권본 『어제비장전』에서 제1권~제20권은 20권본의 제1권~제20권과 동일한 板本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20권본이 기타 어제와 함께 30권본으로 편제될 때 20권본의 經板 전체가 그대로 30권본의 제1~20권의 경판으로 수용된 것이다(30권본 제1권의 권수제 내용(“御製秘藏詮卷第一 總一千首共二十卷并注”) 참조).

2) 『개보장 수정본』은 『개보장 초본』이 교감·수정된 다음 수정·보각된 『개보장』 經板에서 인출된 것이다.

3) 『조성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될 때, 판화가 삭제된

다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성장본』 가운데 廣勝寺本과 興國院本은 동일한 판본으로서 광승사본은 흥국원본보다 후에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4) 『초조장본』은 『개보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이다.

5) 『재조장본』은 『개보장 초본』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될 때, 『개보장 초본』에 있던 판화가 삭제되고 또 원래의 상태(즉 20권본 登梓本의 매행 22行[추정]대로 행수가 조정되고 부분적인 교감·수정을 거친 다음 복각된 것이다.

6) 개보장 『어제비장전』의 판화는 20권본 御製秘藏詮 『개보장 초본』이 간행될 때(988년), 이미 완성된 20권본 『어제비장전』의 登梓本에 추가적으로 삽입되어 판각된 것이다. 이때 판화가 每張과는 관계없이 본문인 偈頌 10首(40句) 사이 사이에 삽입되었고,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은 매장의 행수가 22행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문에 각각의 판화 사이에 있게 된 각각의 본문(偈頌 10首)의 끝부분(좌측에 판화가 있는 장)에 해당되는 장의 행수는 22행이 못 되고 14~23행으로 일정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7) 『어제불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 (1) 어제불부 『中華藏 別出本』의 저본은 원래 20권본 『어제비장전』의 부록이었다가 다시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으로 편제된 『개보장 수정본』이다.
- (2) 어제불부 『중화장 별출본』의 판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조성장본』이다.
- (3) 어제불부 『초조장본』의 저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개보장 수정본』이다.
- (4) 어제불부 『재조장본』의 저본은 30권본 『어제비장전』 제21권에 해당되는 『개보장 초본』이다.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初雕本大藏經」調査完了 報告會 資料集』. 2010.
- 童瑋. “北宋『開寶大藏經』雕印考釋及目錄還原.” 書目文獻出版社, 1991.
-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柳富鉉.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59.
-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과 開寶勅版大藏經의 比較 研究.” 『불교학연구』 16집(2007).
- 柳富鉉.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45집(2010).
-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석혜영, 이재구. “南禪寺 所藏『御製秘藏詮』 研究.” 『古印刷文化』 17집(2010).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1977).
- 竺沙雅章. “宋元版大藏經의 系譜.”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2000.
-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成保文化財團, 1988.

